

Working Paper 2009 - 2

OECD 국가 진로교육 실태
비교 분석:
2006 PISA 자료를 중심으로

임 언

2009. 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OECD 국가 진로교육 실태 비교 분석:
2006 PISA 자료를 중심으로

임 언*

<목 차>

I. 서론	1
II. 표본 및 조사 문항	2
III. 분석 결과	4
IV. 결론 및 제언	10
참고문헌	13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교육훈련연구실 연구위원 (e-mail : elim@krivet.re.kr)

I. 서론

- 세계 금융 위기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예측이 어려운 가운데, 이로 인한 노동 시장의 급격한 변화는 학교 교육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현재의 우리 사회가 처한 경제 사회적 문제들이 얽혀서 드러나고 있는 한국의 학교 교육이 우리나라와 세계 발전에 기여하며, 개인적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을 학생들이 가질 수 있게 교육하려면 어떻게 변모해야하는가? 라는 질문은 쉽게 풀리지 않는 화두임.
- 현재의 학교 교육이 지식 위주로 편중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은 유독 무용지식*에 집착하는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학교는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제를 준비시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임(이득재, 2008). 학문적 맥락에서 추출된 위계화 된 지식에 대한 이해보다는 끊임없이 실제 맥락에 적합한 지식을 생성하고 창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분과적인 교과 중심의 교육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임(소경희, 2006). 학교 교육의 내용이 학생들의 학문적 기초 역량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면, 그 중심에 진로교육이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포함되어야 할 것임. 개인이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자기 주도적으로, 그리고 성찰적으로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기 위해 진로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진로교육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음.
-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는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파편적인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교육활동 속에서 매우 주변적으로 취급되고 있음.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내러티브를 분석한 최근 연구 결과(임언·정운경·최동선·김나라·장명희·정연순·장석민, 2008)에 의하면, 학생들은 체험중심의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또한 진로교육에 열정이 있는 교사들의 내러티브를 탐구한 결과에 의하면 교사들은 진로교육을 의욕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구조와 현실이 있음을 토로하고 있었음. 반면, 일반 교사를 대상으로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을 설문을 통하여 조사 결과에 따르면(맹영임 외, 2008), 55.3%의 교사가 진로교육이 잘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서 교사들은 진로교육의 현황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위에서 언급한 최근의 연구 이외에도, 다양한 연구(오호영·이지연·윤형한, 2007; 이지연·최동선, 2006; 임언·장홍근·윤형한, 2005)에서 진로교육의 현황을 검토한 바 있으므로, 우리 진

* 토플러가 「부의 미래」에서 만들어낸 신조어 “obsoledge”의 번역. 무용지식이란, 기존에 지식으로 간주되었던 것이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더 이상 사실이 아니며 쓸모없는 지식으로 변화한 것을 의미

로교육의 현 실태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를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임. 그러나 국내에서의 조사 결과에만 기초하여 우리나라 진로교육의 객관적 상태를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예컨대, 중등학생의 직업체험 프로그램 참여율이 3.0%~7.0%(한국청소년패널, '03~'08)*로 확인되었다면, 이것이 저조하다고 말할 수 있는 준거를 국내 자료만을 놓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우며, 그것이 비교될 수 있는 준거가 필요함. 선진 외국에서 동일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직업체험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우리나라 현황을 평가하는 데 의미 있는 준거로 활용이 가능할 것임.

-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진로교육 상황을 주요 선진국의 현황에 견주어 봄으로써, 우리 진로교육의 현 실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2006년 OECD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조사 대상으로 포함된 학교에서 학교장이 응답한 진로교육 현황에 관한 설문 내용을 중심으로 직업과 관련된 경험과 진로교육 현황을 국제 비교하고자 함.

II. 표본 및 조사 문항

□ PISA 2006 조사 개요

-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는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적 소양 수준 파악 및 이와 관련된 배경 변인을 조사하여 각국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OECD를 중심으로 실시해오고 있음. 이 조사는 3년 주기로 이루어졌음.
- PISA 2006 본 검사는 2006년 6월7일 ~ 13일 사이에 실시하였으며, 총 57개국(OECD 국가 30개국 포함)의 약 40만 명이 참여함. 우리나라의 경우 OECD/PISA 본부에 의해 표집된 154개 학교의 만 15세 학생(우리나라의 경우 대다수가 고1에 재학 중임) 약 5000명이 참여하였음.

□ PISA 2006 진로지도 관련 문항

- PISA 2006에서는 학생과 학교를 대상으로 진로교육과 관련된 질문을 포함하고 있음. 학생 설문에서는 과학과 관련된 진로를 학교에서 어느 정도 안내받고 있는가에 관한 문항들(Q27, Q28, Q29)과 30세에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 직업명을 쓰라는(Q30) 문항으로 구성됨
- 학교수준에서의 설문에는 다음과 같은 진로교육 관련 질문이 포함됨.

* 출처: '일자리'를 지원하는 선진 진로교육 2010+(교육과학기술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Q23> 직업박람회(Job fairs) 참가, 기업체 대표의 강연 청취 기회, 기업체 방문 경험
 - <Q24> 학생들 중에서 지역 내 기업체에서 훈련을 받는 학생의 비율
 - <Q25> 기업인이 학교 교육과정에 영향을 주는 정도
 - <Q26> 교사들이 과학과 관련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데 필요한 스킬과 지식 개발에 집중하는 정도
 - <Q27> 교사들이 고등교육에 도움이 되는 스킬과 지식 개발에 집중하는 정도
 - <Q28> 학생 진로지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 <Q29> 학교에서 진로지도가 필수인가 아니면 학생의 선택 사항인가?
- 본 연구에서는 학교 수준의 설문 중에서 Q 26과 Q 27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 대하여 국가별 기술통계를 산출하고, 각 국가가 분석단위가 되는 데이터를 구성하여 OECD 국가의 진로교육 실태를 분석하고자 함. 각 국가별로 평균 150명의 학교장이 응답하였음.

Ⅲ. 분석 결과

□ OECD 국가별 진로교육 진로관련 경험 비율

-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직업박람회 참여 여부, 기업인 강연, 기업체 방문, 현장실습)에 대해서 학생들이 일 년에 한 번 또는 그 이상의 경험을 갖는다고 응답한 학교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음. 변인 간 관계 비교를 위하여 각 국가의 언어, 수리, 과학 점수 평균과 순위, 직업교육 트랙의 고등학교 비율(2006년 기준)을 함께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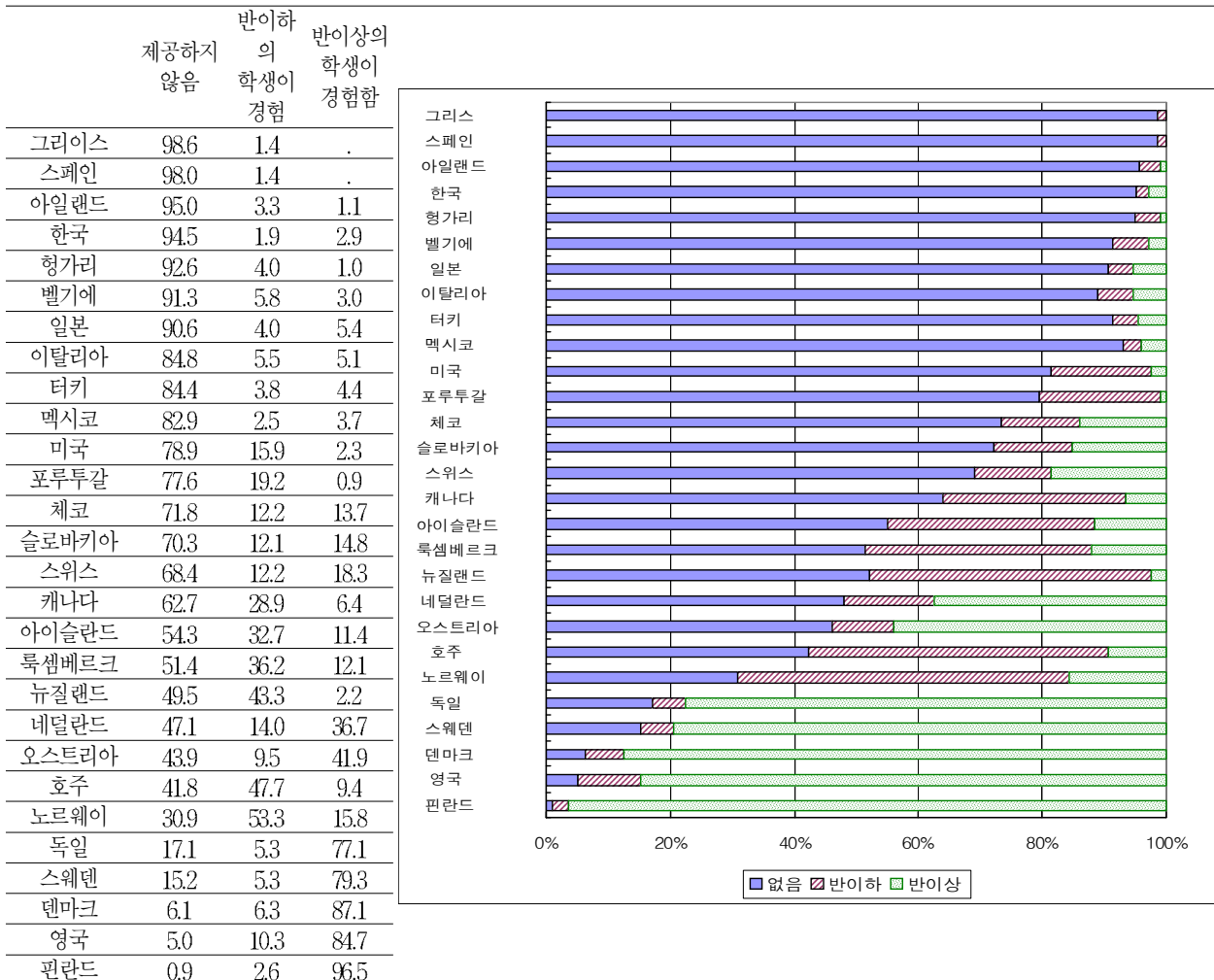
<표 1> 학교에서 진로지도 경험 (단위:1년에 한번 이상 제공하는 학교의 비율, 괄호 안은 국가별 순위)

국가명	직업 박람회(순위)	기업인 강연(순위)	기업체 방문(순위)	현장 실습(순위)	언어(순위)	수리(순위)	과학(순위)	직업계 고교 비율
AUS (호주)	94.6 (2)	86.84 (3)	78.93 (12)	57.10 (7)	513.00 (6)	520.00 (8)	527.00 (5)	61.6
AUT (오스트리아)	73.96 (10)	89.15 (1)	92.43 (4)	51.44 (8)	490.00 (16)	505.00 (13)	511.00 (12)	71.8
BEL (벨기에)	17.50 (27)	24.83 (28)	58.47 (24)	8.76 (21)	501.00 (10)	520.00 (8)	510.00 (13)	69.4
CAN (캐나다)	79.41 (7)	87.37 (2)	74.21 (17)	35.38 (13)	527.00 (3)	527.00 (5)	534.00 (2)	5.4
CHE (스위스)	82.90 (5)	54.06 (20)	85.15 (7)	30.46 (14)	499.00 (11)	530.00 (4)	512.00 (11)	64.2
CZE (체코)	76.34 (8)	74.62 (8)	84.05 (11)	25.89 (16)	483.00 (20)	510.00 (11)	513.00 (10)	79.2
DEU (독일)	89.40 (4)	78.88 (7)	94.52 (1)	82.45 (5)	495.00 (13)	504.00 (14)	516.00 (8)	59.4
DNK (덴마크)	75.29 (9)	85 (5)	93.12 (3)	93.33 (3)	494.00 (15)	513.00 (10)	496.00 (18)	47.8
ESP (스페인)	51.02 (19)	54.89 (19)	75.14 (16)	1.40 (28)	461.00 (26)	480.00 (24)	488.00 (22)	42.5
FIN (핀란드)	69.81 (11)	80.64 (6)	94.01 (2)	99.07 (1)	547.00 (2)	548.00 (1)	563.00 (1)	65.4
FRA (프랑스)	488.00 (17)	496.00 (17)	495.00 (19)	43.1
GBR (영국)	91.95 (3)	85.01 (4)	84.39 (10)	95.01 (2)	495.00 (13)	495.00 (18)	515.00 (9)	41.7
GRC (그리스)	65.43 (14)	38.89 (27)	76.79 (14)	1.41 (27)	460.00 (27)	459.00 (28)	473.00 (28)	33.9
HUN (헝가리)	38.09 (25)	50.91 (24)	77.85 (13)	4.97 (24)	482.00 (20)	491.00 (21)	504.00 (15)	12.9
IRL (아일랜드)	43.59 (22)	51.63 (22)	43.36 (27)	4.39 (26)	517.00 (5)	501.00 (16)	508.00 (14)	2.4
ISL (아이슬란드)	50.89 (21)	64.54 (13)	71.94 (18)	44.08 (12)	484.00 (18)	506.00 (12)	491.00 (20)	35.2
ITA (이탈리아)	58.32 (17)	62.34 (15)	66.74 (20)	10.61 (19)	469.00 (24)	462.00 (27)	475.00 (26)	24.9
JPN (일본)	.	63.36 (14)	27.16 (28)	9.45 (20)	498.00 (12)	523.00 (6)	531.00 (3)	23.7
KOR (한국)	38.38 (24)	51.8 (21)	44.10 (26)	4.84 (25)	556.00 (1)	547.00 (2)	522.00 (7)	27.8
LUX (룩셈베르크)	58.90 (16)	60.61 (16)	84.54 (9)	48.34 (10)	479.00 (22)	490.00 (22)	486.00 (25)	62.9
MEX (멕시코)	17.68 (26)	46.3 (25)	57.46 (25)	6.23 (23)	410.00 (29)	406.00 (30)	410.00 (30)	9.8
NLD (네덜란드)	69.29 (12)	57.45 (17)	71.55 (19)	50.72 (9)	507.00 (8)	531.00 (3)	525.00 (6)	67.5
NOR (노르웨이)	97.56 (1)	68.99 (11)	84.85 (8)	69.07 (6)	484.00 (18)	490.00 (22)	487.00 (24)	60.0
NZL (뉴질랜드)	80.22 (6)	69.99 (10)	58.71 (23)	45.51 (11)	521.00 (4)	522.00 (7)	530.00 (4)	.
POL (폴란드)	508.00 (7)	495.00 (18)	498.00 (17)	44.0
PRT (포르투갈)	65.95 (13)	56.06 (18)	85.51 (6)	20.11 (17)	472.00 (23)	466.00 (26)	474.00 (27)	11.6
SVK (슬로바키아)	41.65 (23)	65.1 (12)	75.52 (15)	26.88 (15)	466.00 (25)	492.00 (20)	488.00 (22)	73.7
SWE (스웨덴)	60.95 (15)	50.95 (23)	87.30 (5)	84.61 (4)	507.00 (8)	502.00 (15)	503.00 (16)	54.2
TUR (터키)	50.90 (20)	43.77 (26)	60.89 (21)	8.14 (22)	447.00 (28)	424.00 (29)	424.00 (29)	36.3
USA (미국)	54.58 (18)	73.15 (9)	60.56 (22)	18.16 (18)	m	474.00 (25)	489.00 (21)	.

-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박람회 참여, 기업인 강연, 기업체 방문, 현장실습이 OECD 28개국 중에서 각각 24위, 21위, 26위, 25위로서 일관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됨.
- 산업체에서의 훈련 경험에 관하여, 한국의 경우 95%의 학교가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반면, 핀란드의 경우 95.6%의 학교에서, 영국에서는 84.7%, 덴마크는 87.1%, 스웨덴은 79.3%의 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의 절반 이상이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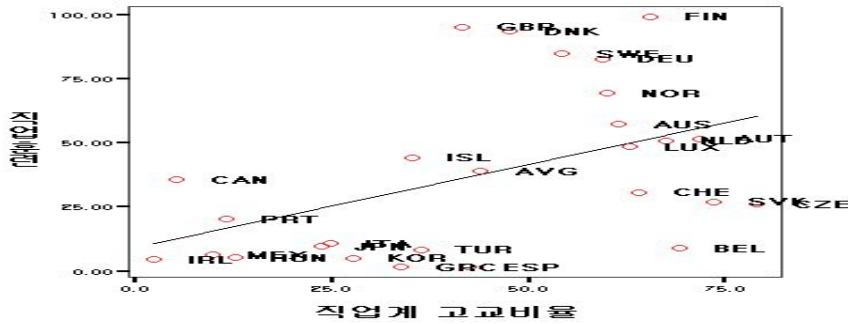
있어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음.

<표 2> 산업체에서의 직업훈련 경험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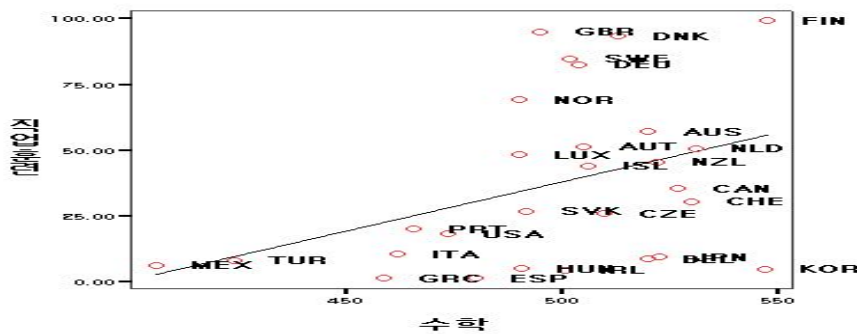


□ 성취 수준, 직업계 고교 비율에 따른 진로교육 정도

- [그림1]에서 보듯이 직업교육을 받는 고등학생의 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산업체에서의 훈련이 일찍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r=.463$). 핀란드의 경우 99.7%, 영국은 95.01%, 덴마크는 93.33%, 스웨덴 84.61%로서 유럽의 국가에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산업체에서의 직업훈련의 경험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이러한 학교들의 경우, 실업계 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비율이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음.



r = .463



r = .377

[그림 1] 직업훈련과 직업계 고교 비율, 수학 성적과의 상관

- 수리영역에서의 점수와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학교의 비율 사이에는 상관의 정도가 .38로서 [그림 1]에서 보듯이 둘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음. 북유럽의 국가들이 언어 영역을 비롯하여 높은 성취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 나라에서의 직업훈련 참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흐름에서 아웃라이어로서 성취도 수준이 높은 국가들 중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현장에서의 직업훈련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의 비율이 4.84로 매우 낮게 나타났음.
- <표 3>은 박람회 참가, 직업인 강의, 산업체 방문, 직업훈련과 학업성취(언어, 수학, 과학), 직업계 고교의 비율간의 순위 상관 계수를 제시한 것임. 학업성적 순위와 기업체 방문을 제외한 모든 변인이 언어, 수리, 과학 점수 순위와 .3 이상의 적지않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현장직업훈련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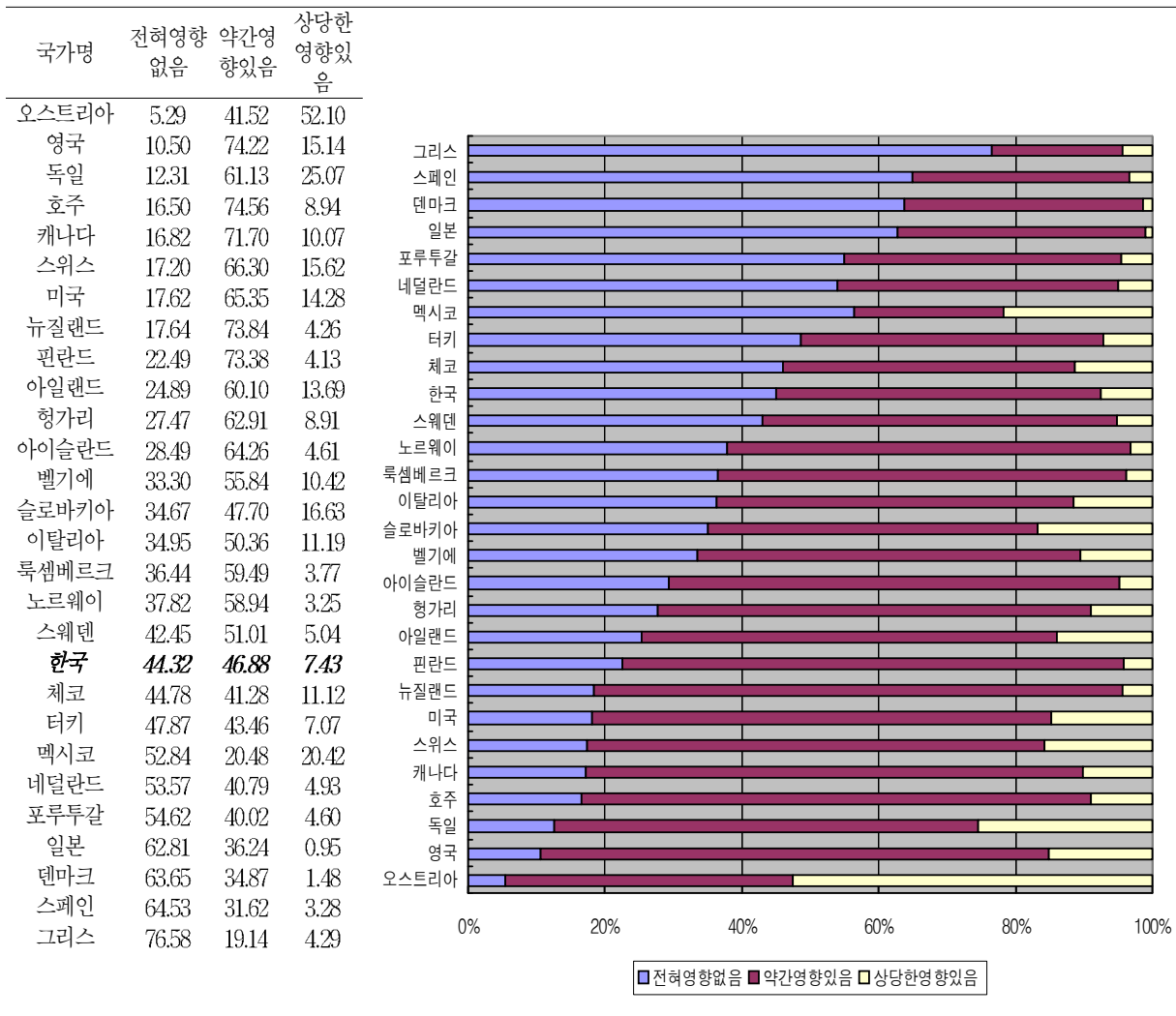
* OECD 국가가 대부분 참여한 전수조사 자료이므로 통계적 유의도는 검토하지 않음.

<표 3> 직업관련 진로지도와 학업성취, 직업계 고교 비율간의 Spearman 순위상관 계수

	박람회	직업인강의	기업체방문	직업훈련	언어	수학	과학	직업교육비율
박람회	1.00	.69	.60	.69	.32	.31	.44	.29
직업인강의	.69	1.00	.43	.69	.32	.36	.51	.29
기업체방문	.60	.43	1.00	.69	-.02	.04	.03	.44
직업훈련	.69	.69	.69	1.00	.38	.38	.39	.46
언어	.32	.32	-.02	.38	1.00	.84	.84	.10
수학	.31	.36	.04	.38	.84	1.00	.89	.34
과학	.44	.51	.03	.39	.84	.89	1.00	.23
직업교육비율	.29	.29	.44	.46	.10	.34	.23	1.00

□ 학교 교육과정에 산업체가 미치는 영향의 정도

<표 4> 교육과정에 산업체가 미치는 영향의 정도(단위: 학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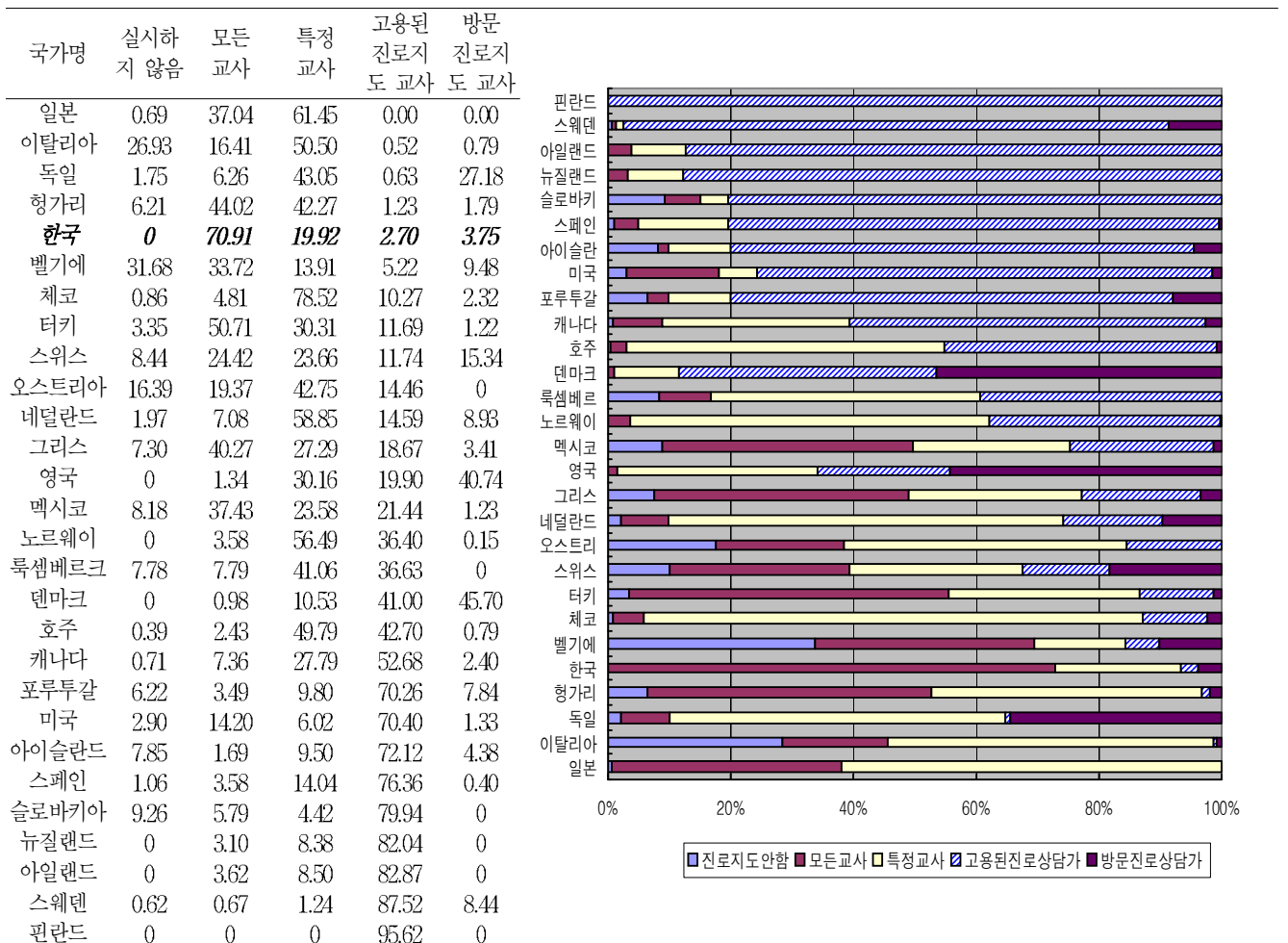


- 학교 교육과정에 산업체가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물어본 결과, 우리나라는 44.32%의 학교장이 산업체는 학교 교육과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46.88%는 약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7.43%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응답한 반면, 호주의 경우 52.1%가 산업체로부터 교육과정 구성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학교에서 진로교육 담당자

- 학교에서 진로교육의 주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70.91%의 학교에서 모든 교사가 책임을 지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고용된 진로교사가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는 2.70%로 매우 낮게 나타났음.

<표 4> 진로교육의 주된 책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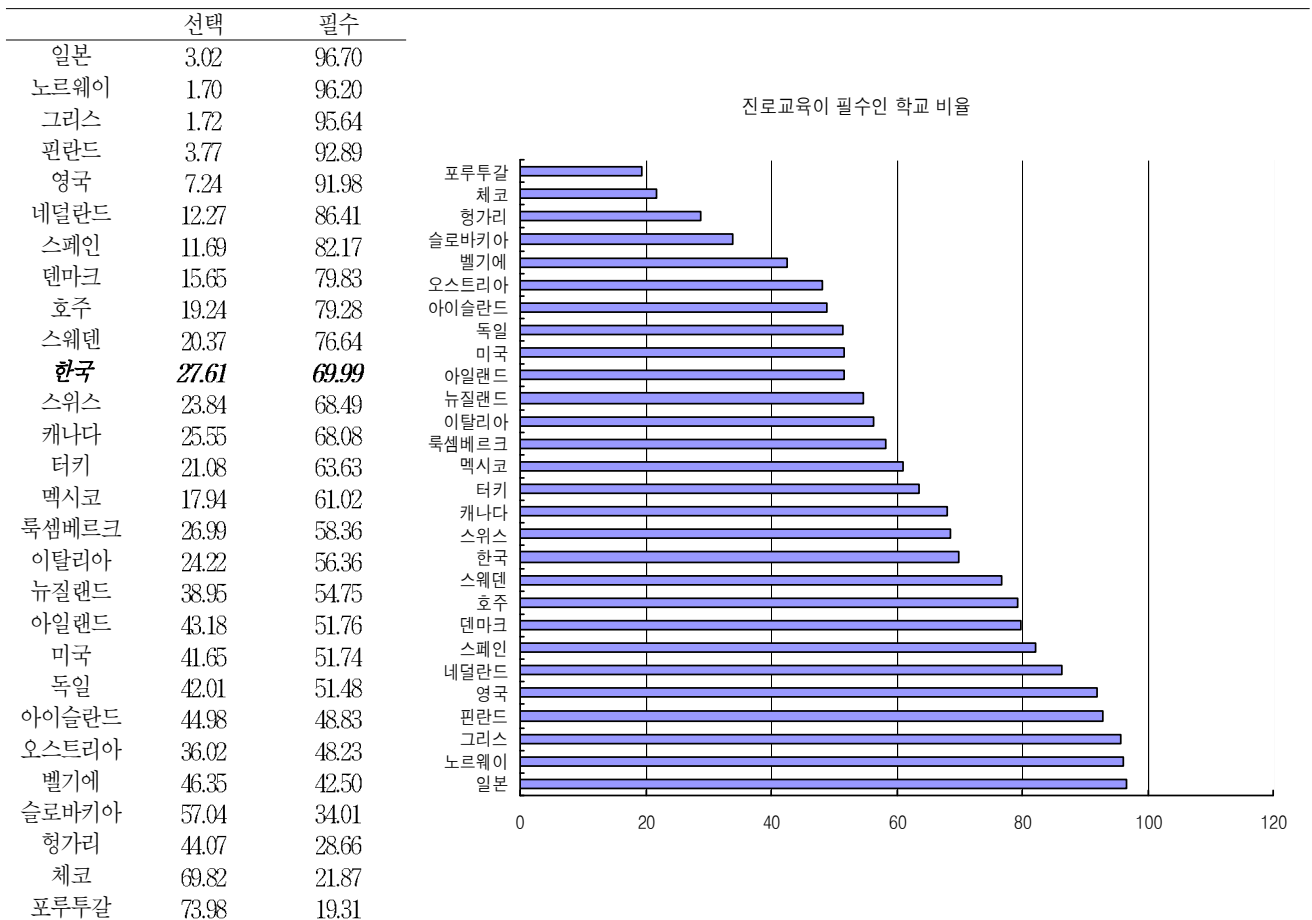


- 고용된 진로지도 교사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나라는 핀란드(95.62%), 스웨덴(87.52%), 아일랜드(82.87%)로서 유럽의 국가에서는 진로교육 전담 교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 나라에서 모든 교사에 진로교육 책임이 있다는 응답결과는 뚜렷한 진로교육 전담자가 없는 가운데, 많은 교사들에게 불투명하게 책임이 분산된 실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 학교 진로교육 필수 및 선택 여부

-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이 모든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필수적인 요소인가 아니면, 학생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인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우리나라는 69.99%의 학교에서 필수사항이라고 응답하였음. 일본이 96.70%로서 진로교육이 필수라고 응답한 학교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노르웨이(96.2%), 그리스(95.64%), 핀란드(92.89%)의 순서로 나타났음.

<표 5> 진로교육의 선택 및 필수 여부



- 진로교육 필수 여부를 통하여 국가 간 진로교육이 활성화된 정도를 비교할 수 있으려면, 모든 나라에서 학생들이 교과 활동에 대한 선택권이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우리나라 중학생에게 있어서 교과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 진로교육이 필수라고 응답한 학교의 비율이 낮지 않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진로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봄.

IV. 결론 및 제언

□ 주요 발견

- 본 연구에서는 2007 PISA 조사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포함되어 있는 진로교육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OECD 국가 내에서의 진로교육 현황을 비교하였으며,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첫째, OECD 각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직업과 관련된 교육 활동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제시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박람회 참여, 기업인 강연, 기업체 방문, 현장실습이 OECD 28개국 중에서 각각 24위, 21위, 26위, 25위로서 일관되게 낮은 순위로 나타남.
- 둘째,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기업체에서의 현장 실습 및 훈련의 기회를 거의 제공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95%가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함). 반면, 핀란드의 경우 95.6%의 학교에서, 영국에서는 84.7%, 덴마크는 87.1%, 스웨덴은 79.3%의 학교에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산업체에서의 훈련을 받았다고 응답하고 있어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음.
- 셋째, 언어, 수학, 과학 점수, 직업교육 중심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비율이 진로지도의 정도와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음. 성취도 수준이 높을수록, 직업계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진로지도를 활발하게 실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나타나고 있음. 즉, 성취도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진로지도를 매우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넷째, 학교에서 진로교육에 대한 주된 책임자가 어떠한 형태로 근무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핀란드(95.62%), 스웨덴(87.52%), 아일랜드(82.87%)와 같은 유럽 국가일수록 고용된 전담 교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진로교육 전담 교사가 있다고 응답한 학교의 비

율이 지극히 낮은 가운데(2.7%), 모든 교사가 진로교육에 책임이 있다고 응답하였음(70.91%). 진로교육이 단순히 직업을 안내하는 것을 넘어서 미래의 삶에 대한 자기 주도적 계획과 준비를 가능하게 하는 진로개발 역량을 기르는 것이며, 이러한 역량은 전 교과를 통하여 통합적으로 길러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최근의 진로교육 논의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임연외, 2008).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교사에 진로교육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임. 즉 모든 교사가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각자가 담당하고 있는 교과 내에서 진로교육을 시도하고 있다면, 이는 매우 이상적인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임. 하지만, 현재 한국 진로교육의 현실을 감안할 때, 모든 교사가 교과통합적으로 적극적으로 진로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뚜렷한 진로교육 전담자가 없는 가운데, 많은 교사들에게 불투명하게 책임이 분산된 실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 제언

- 체험에 바탕을 둔 직업탐색의 기회를 확대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진로 박람회를 광역시도 수준에서 매년 개최하여 관내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에 실제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
 - 5월 가정의 달 기간 중에 직업 체험의 날 또는 주간을 정하여, 학생들이 부모님의 직장을 비롯하여 관심 있는 직장에 방문하도록 하며, 일정한 기간 동안은 모든 공공기관 및 기업체가 이러한 교육적 활동을 사회적 책무성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사회적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필요함
- 현장학습이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직업 현장에서의 교육 활동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현장학습이 중소기업에서의 노동력 활용의 성격을 가짐으로 인하여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했던 사실을 돌이켜 볼 때, 현장에서의 활동이 교육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할 것임
 - 퇴직한 직업인들을 현장 직업훈련 교사로 교육하여 학생들의 현장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와 같은 교육을 제공하는 기업체에게 일정한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진로교육 전담 교사의 배치
 - 선진 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진로교육 전담 교사를 둔 학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적극적이며 체계적인 진로교육의 시행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 학교별로 진로교육 전담 교사를 배치하여, 학교 내 다양한 활동 속에 진로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진로상담 서비스 및 진로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교원 진로교육 연수 강화
 - 사범대·교육대 재학생 대상 진로교육 과목 이수 확대
 - 교사, 교장·교감 대상 교원 진로교육 연수 확대
- 본 연구에서는 직업 탐색에 한정하여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최근의 진로교육에 대한 논의에서는 진로교육의 범위를 단순한 직업탐색을 넘어서 일생 동안의 다양한 삶의 경험을(life-long, life-wide career) 자기 주도적으로 의미 있게 영위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임언 외, 2008). 이와 같이 확대된 개념의 진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활동을 넘어서 전 교과를 통하여 교과통합적으로 진로교육이 운영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관련 자료를 개발하며,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의 한계

- 본 연구는 체계적인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진로교육의 현황을 국제적으로 비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 우선, 이 분석에 기초가 되는 자료는 학교장들이 응답한 것이며, 각국에서 평균 300여명의 학교장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음. 학교장의 자기 보고에 기초했다는 점에서 각국의 정서적, 문화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결과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또한, PISA 2006에 포함된 설문 내용인 직업박람회への 참여 여부, 기업체 방문, 기업인 강연, 직업훈련 여부가 한 나라의 진로교육 실태를 대표하는 문항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음.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직업에 대한 탐색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양한 교과에 포함된 진로와 관련된 주제들을 통하여 진로지도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 또는 진로성숙도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결과가 아니며,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장의 인식에 기초한 자료라는 점에서 여기서 제시된 순위가 곧 그 나라 학생들의 진로개발 역량을 나타낸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아울러, 도제제도의 오랜 전통 속에 노동시장과 교육과의 관계가 긴밀한 유럽 국가들의 진로교육 현실과 우리 진로교육의 현황을 단순히 수치로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제기도 가능하다고 봄. 우리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발전해온 우리 교육의 특성을 충분히 인정하는 가운데, 선진 외국의 실태를 지혜롭게 참조하고자 하는 창의적인 정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요청됨.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8). 『‘일자리’를 지원하는 선진 진로교육 2010+』 .
- 맹영임·임경희(2008). 『진로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소경희(2006). 학교지식의 변화 요구에 따른 대안적 교육과정 설계 방향 탐색. 『교육과정 연구』 , 24(3), 39-59.
- 오호영·이지연·윤형한(2007). 진로정보센터 운영(2007): 『진로교육지표 조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득재(2008). 『대한민국에 교육은 없다』 . 철수와 영희.
- 이미경·손원숙·노언경(2006). 『PISA 2006 결과 분석 연구- 과학적 소양, 수학 소양, 읽기 소양 및 배경 변인 분석』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지연·최동선·이혜숙(2007). 『초·중등학교 교과통합형 진로교육을 위한 진로교육 요목 계열화 연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언·정윤경·최동선·김나라·장명희·정연순·장석민(2008).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 모델 구축』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언·장홍근·윤형한(2005). 『직업진로교육의 실태와 과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